

제13회 한용교포장인상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운영욱)는 지난 2월 25일 '포장인의 날'을 맞이해 제13회 한용교 포장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13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는 ▲ 연구개발부문 한권형(SKC(주) 필름개발실 선임연구원) ▲ 장학생부문 안병준(연세대학교 패키징학 3년), 정미화(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1년) 등이다. 한용교포장인상은 한국포장협회 한용교 명예회장이 희사한 재원으로 포장인들에게 연구의욕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 포장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지난 1996년 제정됐다.

본 고에서는 제13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제13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연구개발부문 한권형 SKC(주) 필름개발실 선임연구원

장학생부문 안병준 연세대학교 패키징학 3년

장학생부문 정미화 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1년



생분해 이축연신 PLA 필름 개발

세계 최대 스낵 제조업체 대표 브랜드 적용

한 권 형 / SKC(주) 필름개발실 선임연구원

제

13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에서 SKC(주) 필름개발실의 한권형 선임연구원이 연구개발부문 수상자로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포장인의 한 사람으로 가장 권위있는 상인 한용교 포장인상을 받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여겨 정진하는 포장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한권형 선임연구원은 2004년에 SKC 필름개발실에 입사, 이듬해인 2005년부터 포장필름개발을 담당하게 됐다. 그가 포장필름개발팀으로 옮기면서 맡게 된 첫 업무는 바로 열수축필름 개발. 그 후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필름을 포장 필름에 적용하는데 주력한 결과, 지난 해 9월에는 장영실상을 수상했으며 12월에는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생분해 필름을 납품하는 Fritolay로부터 혁신공급자상 등을 수상하는 등 영광스러운 한해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한권형 선임연구원은 기초적인 생분해성 필름 개발 및 양산과 더불어 생분해성 필름을 적용시키고, 확대시키는데 따른 기술 협의 등 전반적인 생분해성 필름의 포장용 필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필름의 약점 개선과 기능성 향상에 연구개발 초점을 맞춰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 금번 생분해 이축연신 PLA 필름 개발로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상하게 됐다. 그는 “석유 자원이 고갈되고, 쓰레기 배출량이 점점 증가되며,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점철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생분해성 필름은 포장용으로 사용할 때 환경부하가 전혀 없는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히면서 “생분해성 필름은 친환경적이고 토양 매립 시 100% 자연분해되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가 개발한 생분해 이축연신 PLA 필름은 스낵 부분



◀ 연구개발부문을 수상한 한권형 선임연구원

에 있어서 전 세계 4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Fritolay의 Sunchip에 세계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쾌거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런 개발 쾌재가 단숨에 이뤄지지 않는 것을 더. 그는 필름 생산 테스트 과정 중 밤낮 구별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했던 에피소드도 전했다.

“필름 생산 테스트가 야간까지 진행되었는데, 한 번은 원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새벽에 테스트를 종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료를 더 추가해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원료 담당자한테 새벽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아 다짜고짜 원료 담당자 집에 새벽 5시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원료 부족 부분을 채우게 되어서 다행히도 안전하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한권형 선임연구원의 연구 개발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은 국내 최초의 PLA 이축

연신 필름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세계 최초로 양산화에 성공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포장필름 제조 및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포장 업계 전체를 아는 지식이 부족함을 느낀다는 한권형 선임연구원은 포장 단계 차원에서 포장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 교육을 통해 포장인이 양성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포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여러 포장인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생분해성 필름이 포장용 필름으로 더욱 확대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포장 필름 개발 담당자이자, 나아가 포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기능의 포장 필름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한권형 선임연구원의 활약을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



패키징학과 매력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주력해야

안 병 준 /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3년



제 13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 수상은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안병준 학생이 차지했다. 안병준 군은 “2005년 패키징학과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패키징학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여 패키징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학문에 도전한다는 생각을 갖고, 두려움 보다는 더 큰 기대를 갖고 입학하게 됐다는 안병준 군은 올해 패키징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한용교포장인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함으로써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는 패키징학은 주변 사람들에게 패키징 원료 및 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는 국내 유일의 패키징 관련 4년제 학과로 전문화된 패키징 지식, 국제적 감각과 훌륭한 인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산업계와 학계에 배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패키징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는 안병준 군은 올해 패키징학과 학생회장을 맡은 만큼 교수님과 여러 대학

원생의 지도아래 보다 많은 인재를 업계와 학계에 배출하는 한편 패키징학이란 매력적인 학문을 앞으로 입학하게 될, 후배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새로운 배움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는 “패키징학은 다양한 분야의 기초 지식이 필요한 종합과학적 학문”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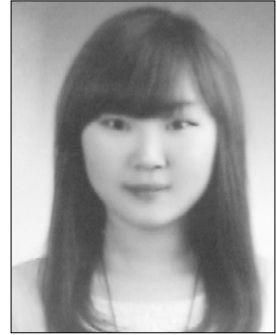
많은 지식이 필요한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비해 그 지식을 토대로 더 많은 지식과 새로운 것들을 깊이 있게 공부 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다는 것. 패키징학을 접하면서 남들과는 차별된 상상을 많이 하고자 노력한다는 그는 패키징학을 다른사람에게 널리 알려야겠다는 포부 아래 현재에 충실하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병준 군은 업계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패키징학과란 무엇이며, 현재와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홍보 및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상상의 리더와 감동, 재미, 예수를 알리는 메신저’라는 꿈을 꾸면서 패키징업계를 선도할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안병준 군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K]



패키징 발전 위해서는 우수 인재 및 전문가 확보해야



정 미 화 / 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1년

“패키징학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한용교포 장인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수상이 패키징학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큰 일을 해내는데는 재능이라는 능력보다 노력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화 양은 ‘물류유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인 상황과 패키징에 마케팅적인 요소를 부여하여 상품의 가치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판단아래 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에 입학하게 된다.

“배움의 범위가 커지고 범위의 깊이가 깊을수록 기술적인 매력, 과학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패키징학인것 같다”고 전한 정미화 양은 상품에 패키징을 하는데 높은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포장코디네이터라는 자부심으로 전공을 선택, 물품의 첫 번째 단계인 기본적인 패키징함과 동시에, 물류유통시에 대한 고려를 넘어 상품을 위한 마케팅요소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공부하고 있다.

물류유통과 상품의 패키징에 대한 이론, 세련된 패키징에 철저한 마케팅을 위한 색채학, 패

키징재료 실험 및 실습 등을 공부하고 있다는 그녀는 단순한 듯하면서도 심도있는 패키징학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다고 전했다.

정미화 양은 패키징학과 학생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샘플북을 통해 포장재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패키징 업계의 젊은 인력이 될 수도 있는 학생들과 많은 일반인들에게 패키징학이란 무엇이며, 사회 흐름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의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패키징 업계가 발전하는데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패키징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패키징마케팅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가겠다는 그녀는 패키징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패키징 관련된 우수한 능력을 지닌 인재와 전문가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차게 밝혔다.

무한한 열정으로 미래를 꿈꾸며 업계 발전을 위해 도전해 나갈 정미화 양의 발전을 주목해 본다. ☐